

보도자료		 www.medianetwork.kr
보도요청: 2020.4.6.(월) 11:00 부터		
담당	미디어연대	
연락처	(02) 741-7662	FAX (02) 741-7663
E-mail	mirifica@naver.com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020년 14주차 발표 (4.6일)

“대놓고 ‘민주당 프레임’으로 홍보·선전하는 KBS”

- 비례정당 여권 강행 원죄 모른체 야당 책임만 묻는 불공정 여론조사 설문-
- “여권 실세 연루 ‘신라젠’ 사건으로 여권 호위, 검찰 공격한 MBC”**
- 여당 위법행위는 몰타기, 대놓고 홍보하는 ‘여당 위성방송’으로 전략-
- “불리한 이슈’ 이낙연은 감추고, 황교안은 공격 JTBC의 어용본색”**
-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권력아부 보도 국가기간통신 <연합뉴스>”**
- 총선보도 여당 훨씬 많이/‘방역 원죄’ 안 묻고/‘조국 살리기’ 해명만 -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권의 언론홍위병으로 전략한 공영방송사들의 편파보도가 더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뉴스9>은 헤드라인 등에서 아예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보도 분량에서도 미래통합당보다 민주당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6일 지상파, 종편 등 주요 방송과 공영 언론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3인의 대표와 박한명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3월 29일(일)부터 4월 4일(토)까지 7일간 보도 내용을 분석한 「팩트체크+ 14주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뉴스9>은 노골적인 민주당 홍보기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편파성을 보였다.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 일꾼 민주당”>처럼 민주당 프레임의 보도를 강조했고, 보도 분량도 3분 16초로, 미래통합당의 “경제 실정, 불공정 정권 심판 깃발” 보도 1분 56초 분량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뉴스9>은 30일 방송에서 26개의 리포트 중 무상 지급에 관한 기사가 7건으로 총선을 겨냥한 사실상의 정부여당 홍보 기사를 쏟아냈

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도 잘못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야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긴 마찬가지였다. <시사기획창>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잘못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미래통합당에 불리한 조사결과를 발표해 여론을 오도할 위험성이 컸다.

KBS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전날 인터넷 기사와 당일 <뉴스9>, <시사기획창> 본방에서 보도했는데, 문제가 된 질문은 '비례대표 정당의 창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였다. 이 설문은 비례대표 정당 창당을 아예 나쁜 것으로 전제하고 어느 쪽이 더 나쁘냐고 물어 의도적으로 편향된 조사결과를 유도했다.

KBS는 이 설문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 책임을 묻는 질문에 답변자의 45.3%가 미래통합당 책임, 35.3%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 “비례정당 창당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51.8% (부적절 48.2%),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48.7%(부적절 51.3%)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루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선입견 없이 묻거나 이 제도가 정치권의 합의 없이 범여 정당의 일방 강행으로 도입됐다는 점도 명기했어야 공정한 설문조사 설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보도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법 등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여권 실세 연루 의혹의 신라젠 사건 보도와 관련해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제보자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독 기사라며 4일 연속 톱기사로 보도하며 여권을 호위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어용 본색을 드러냈다.

또 총선 여론조사에서도 5백 명에 불과한 표본과 범여권이 과다 표집된 지극히 신뢰도 낮은 조사결과로 여당 후보가 완연하게 앞서가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특히 4월 3일자 <與 '꿈수 홍보' 제동...황교안 '키 작은 사람' 논란>이란 제목의 보도에서는 여당의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MBC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야당 논란 발언과 한데 묶어, 여당 위법행위는 물타기하면서 야당 발언은 논란을 증폭시키는 정치 편파적 보도를 했다.

4월 4일자 <'매운맛 민주당'까지...진보 비례 열전 '점입가경'>이란 리포트에서는 여권의 제2위성정당으로 범법 혐의자와 윤리도덕적 문제를 안은 후보자들을 내세운 '열린

민주당'을 사실상 열렬히 홍보하고 칭송하기까지 하고 나머지 여권 비례정당까지도 실제로는 함께 홍보해 주는, 공영방송으로서는 금도를 넘은 보도로 MBC 스스로도 '여권 위성방송'으로 전략했음을 드러냈다.

JTBC는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관해 <"교회 감염 거의 없다" 글 게시→삭제→복구…황교안 왜?>, <황교안 "n번방 호기심 입장, 판단 다를 수 있다"…비판 쏟아져> 등의 불리한 보도를 계속 내보낸 반면, 황 대표의 종로 지역구 경쟁자이자 지난 해 뉴스룸이 단독인터뷰로 일방적 홍보를 해줬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불리한 소식을 절대 보도하지 않는 등 정치적 편파성이 극심했다.

연합뉴스는 총선 보도 꼭지수에서 여당쪽 분량을 야당보다 30%나 많이 배정한 가운데 코로나 극복에서 애초 '문 열어 놓고 방역한 원죄'는 일체 보도없이 여권의 캠페인성 극복 발언만 일방 홍보하고 문제의 '조국 살리기' 시도에 대한 여권 선대위원장 이낙연 후보의 발뺌만 그대로 보도하는가 하면 여권 내부 이견에도 중산층을 겨냥해 던진 총선용 종부세 완화 공약의 문제 지적 보도도 일체 하지 않는 등 국가기간통신사가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였다.

(붙임 : 팩트체크+ 14주차 보고서)

「팩트체크+ 14주차 보고서」

차 례

I. 민주당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KBS

<뉴스9>

II. KBS, 잘못된 여론조사로 야당에

불공정 보도

<시사기획 창> 관련 보도 팩트체크 /

<정치합시다> 팩트체크

III. 여당 위성방송으로 전락한

MBC<뉴스데스크>

신라젠' 사건 여권 호위, 검찰-타 언론 공격

/여당 위법행위를 야당 사소 사안과 몰타기 보도

/여권 비례정당 보도가 아닌 홍보방송

IV. JTBC 총선보도 '통합당·황교안 때리기'

노골적인 황교안 공격 / 더불어민주당 편들기
/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보도하지 않는 뉴스룸

V. <연합뉴스> 편파적인 총선보도

총선보도 여당 훨씬 많이/'방역 원죄' 안 묻고

/'조국 살리기' 해명만 -

I. 민주당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KBS <뉴스9>

▶ <공식선거운동 시작..‘위기극복’, ‘정권심판’> (4.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6289>

● 선거 시작 날 민주당 중심으로 헤드라인 프레임을 잡고 보도, 앵커는 민주당을 더욱 강조해 보도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 일꾼 민주당” 호소

다음 기사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 일꾼 민주당” 호소 공식 선거운동 시작…“위기 극복”·“정권 심판”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통합당은 정부의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 일꾼 민주당” 호소(4.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분량 3분 16초)

▶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 통합당) 경제 실정, 불공정 정권 심판 깃발”(4.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6292>(분량 1분56초)

● 민주당 중심의 보도 3분 16초, 미래통합당 중심 보도 01분 56초, 보도 분량에서 편파성을 보였다.

○ 관련 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5월 중순 지급 추진”(3.3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3382>.

○ “전국 2천만 가구 중 천 4백만 가구, 3천 6백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로 지급됩니다. 당초 정부안, 천만 가구보다 범위가 크게 늘어난 건데, 정부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조 원의 재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존 예산의 지출 항목을 다시 조정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후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국민들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3.30).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씩 무상으로 지급한다. 선거 앞둔 상황에서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법 조항을 무시한 범법 행위이다. 2분 38초 기사에 대통령이 3번 등장하고, 헤드라인을 포함해 2건 방송이 문재인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날 무상지급에 대한 기사는 26개 중 7건이다. 추경예산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된다. 그러나 국회 승인도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있는 상태이다. 나라 빚이 815조 고지를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 이미 41.2%를 찍고 있을 때였다. 그 상태에서 단독 의견을 확증된 것처럼 이야기한다. 경제 부총리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와 선심선 예산을 쏟아내면 문제가 있다.

○ 관련 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②항,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루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코로나 승리’로 열세지 극복”…쌍둥이 버스 STOP! (4.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7161>

▶ [21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당 “경제, 깡통 찰 지경”…설화 논란 계속 (4.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7162>

● 같은 선거인데 민주당 2분 37초. 미래통합당 1분 54초. 내용도 여당은 전국을 아우르는 분위기, 야당은 지역적 정당으로 이미지 확산. 이낙연 후보 띄우고, 황교안 대표를 폄하 분위기 연출.

○ 여당 관련 : 얼마나 투표장에 갈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중앙선관위도 조사자료 내놨는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수, 열 명 중 일곱 명이 넘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조사한 것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변수 때문에 투표율 걱정했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 더 많은 거죠. 30대에서 50대까지는 열 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고 60대 이상 세대는 열 명 중 8명 이상이 투표 의지 밝혀서 세대별 표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4.3), 민주당은 춘천과 서울, 제주도에 3각 유세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 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제작한 이른바 쌍둥이 버스는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코로나 승리’로 열세지 극복”…쌍둥이 버스 STOP!)

○ 야당 관련 : **황교안 폼하에 초점**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 “저는 폭망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n번방’발언에 이어 '키 작은 사람은 정당 투표용지도 들지 못한다'고 말한 게 '신체 비하 발언'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황 대표는 '사사건건 꼬투리'라며 '적당히들 하라'며 반박했습니다. (통합당 “경제, 강통 찰 지경”…설화 논란 계속)

○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 열린민주당 ‘변수’…누가 웃을까?(4.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7591>

○ 열린민주당 띄우기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 여당의 효자정당을 자처하고 나선 열린민주당에 관심이 쏠립니다. 열린민주당 변수에 각 정당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중인데 전체 총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효자정당이라는 열린민주당 지도부, 부산 유세 중 우연히 민주당 후보와 마주했는데..[손혜원/김비오 : "김비오 아~~~~비오 비오~~김비오 (찍지 말아요, 찢려요.. 나 찢리게 생겼어..)] 민주당 후보, 곤란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의 공식적인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지난달 25일 : "(열린민주당은)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선긋기에도 열린민주당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 관련 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①항,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Ⅱ . KBS, 잘못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야당에 불공정한 보도

● 특정방향으로 몰아간 설문지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한 책임, 미래한국당이 더 큰 것으로 보도

● 여론조사 대상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설명, 코로나19 대응을 잘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고 미래통합당은 공천

잘못으로 지지도가 내려갔다고 오인하게 방송

●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보도하여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법 등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1. KBS <시사기획 창> 관련 보도 팩트체크

○ 4월 3일 오후 KBS 디지털 뉴스에 탐사보도부가 작성한 기사가 게재됐다. 다음 날 방송될 <시사기획 창> ‘의원님의 두 얼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미리 보도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 책임을 묻는 질문에 답변자의 45.3%가 미래통합당 책임, 35.3%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비례정당 창당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51.8%(부적절 48.2%),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48.7%(부적절 51.3%)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아이템은 당일 KBS <뉴스9>에서 보도됐다. 이어 4월 4일 본 프로그램이 KBS 1TV로 방송되었다.



▶ 디지털 뉴스 : [여론조사] 비례제 “취지 훼손” 67%·“향후 폐지” 70%…책임은 누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6885>

▶ KBS <뉴스9> : [탐사K] 비례제 “취지 훼손” 67%, “향후 폐지” 70%…누구 책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7164>

▶ KBS 1TV <시사기획 창> ‘의원님의 두 얼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7575>

○ 이번 KBS 여론조사결과 보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여론조사의 질문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가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어 보이는 것이다.

- 설문 8번에서 ‘비례대표정당의 창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를 묻는다. 질문자체가 편향돼 있다. 더구나 질문 8-1에서는 8번 대답에 동의한 답변자만을 대상으로 ‘그렇

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훼손의 책임은 두 정당 중 어느 정당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 다시 말해 비례대표 정당의 창당이 나쁜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어(8번 질문) 나쁘다고 답변한 사람들을 상대로 누가 더 나쁘냐고 묻는 것이니 결과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루고자 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선입견 없이 묻거나(설문지 1번 질문은 좋은 취지임을 내비치며 질문) 8번, 8-1번의 질문을 하려면 이 제도가 정치권의 합의 없이 도입됐다는 점도 명기했어야 했다(2020.04.03. KBS공영노조 성명서 “KBS 탐사보도부가 제작했다는 <시사기획-창>의 방송을 취소하라” 참조).

○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KBS의 여론조사 보도는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고,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보도하여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법 등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2. KBS <정치합시다> 팩트체크

○ 3월 29일 KBS <정치합시다>에서는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평균과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치를 비교분석했고, 전국과 지역의 민심과 정치흐름을 살펴보았다.

▶ KBS 1TV <정치합시다> ‘민심포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2527>

○ 여론조사 대상자가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설명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잘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고 야당은 공천 잘못으로 지지도가 내려갔다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국은 ‘잘했다 52.7%’, ‘못했다 42.6%’인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긍정 평가 45.1%’, 부정 평가 52.4%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7.3%p 앞섰다.

- 공천과 관련하여 “미래통합당은 ‘못하고 있다 56.7%’, ‘잘하고 있다 25.3%’. 더불어민주당은 ‘잘하고 있다가 41.4%’, ‘못하고 있다가 41.7%’”는 조사결과를 인용해서 설명했다.

- 또한 여야의 공천평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전략, 원칙도 없는 ‘막천’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여야간의 균형을 갖추지 않았다.

3. 참고 사항

○ <선거방송심의회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KBS 또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BS는 여론조사의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 ‘15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작자는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표본은 올바르게 추출하는지, 실제조사는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감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거관련 조사의 경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가 끝난 뒤 조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인수하여 여론조사 사후 감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끝.

Ⅲ. 여당 위성방송으로 전략한 MBC <뉴스데스크>

1. 주요 편파보도 사안 요지

● 여권 실세 연루 의혹의 신라젠 사건 관련, 신뢰성 의문의 제보자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독기사라며 여권 호위 및 검찰 공격 내용으로 4일 연속 톱기사 등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냄. 그동안 신라젠 사건 본질 자체는 보도하지 않다가 정치적 의도 내지는 공작 차원의 소지까지 있는 미확인 부수적 사안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보수 언론의 유착이라는 자의적 해석과 구도를 설정 대입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음.

● 총선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5백 명에 불과한 표본과 25%나 되는 부동층에 범여권 지지자 비율이 54%로 과다하게 표집된 신뢰도 낮은 조사결과인데, 거기에서 나온 지지율 수치를 머리에 내세우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가 완연하게 앞서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느끼게 보도. 2017년 대선 때 범여 정당 후보(문재인/심상정) 득표율은 투표율 77.2% 적용시 전국민의 36.5%(투표자의 47.3%), 범야 후보(홍준표/안철수/유승민)은 40.3%(투표자의 52.2%)로 이에 비교하면 여권지지 표본은 배 가까이 많이 반영돼 있음.

● 4월 3일 <與 '꼼수 홍보' 제동...황교안 '키 작은 사람' 논란>이란 보도에서 여당의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MBC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야당 논란 발언을 한데 묶어 여당 위법행위에는 몰타기하면서 야당 발언은 논란을 증폭시키는 정치편파적 보도를 하고 4월 4일 <'매운맛 민주당'까지...진보 비례 열전 '점입가경'>이란 리포트에서는 여권의 제2 위성정당으로 범법 혐의자와 윤리도덕적 문제를 안은 후보자들을 내세운 '열린민주당'을 사실상 열렬히 홍보하고 칭송하기까지 하고 나머지 여권 비례정당까지도 실질적으로는 함께 홍보해 주는, 공영방송으로서는 금도를 넘은 보도로 "MBC 스스로도 '여권 위성방송'으로 전략"했음을 드러냄.

● 4월 3일 <방위비 협상 '김치국' 마시지 마?...해명이 더 '군색'>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본질은 끝나지도 않은 대미 방위비 협상을 '완승'한 것처럼 여권이 왜곡 발언을 해 총선에 이용하려던 것이었고, 미국측으로부터도 '김치국'이란 조롱을 받아 한미동맹의 신뢰성까지 떨어트린 사안인데, 이를 미국측 협상 관계자가 돌출 발언했다는 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가하면서 몸통을 호도.

2. 주간 보도내용 전수 분석과 팩트체크

*보도일 / 보도 기사 총 건수-스포츠 기사 제외 / 보도 순번 / 기사 제목 / 팩트체크 평가 순.

[3.29] <총 13건>

(톱1) 검사 받고 마스크 없이 스크린 골프...'격리 무시' 외국인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85847_32524.html

(☞ 애초 입국금지 내지는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정권의 근본적 책임에서 초래된 결과인데 정권의 방기 책임은 지적 않고 그 결과로 발생한 당사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가하고 정권에는 면죄부.)

(톱2) 금지 명령에도 예배 '강행'...서울시 "형사 고발"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85848_32524.html

(☞ 야권과 관련된 특정 종교 집회만 짚어내 문제시 하는 보도로 정권의 책임은 도외시)

(3)~(10) 코로나19, 사건사고 등 기사

(11) [선택2020] 與 "조용한 선거" vs 野 "정권 심판"

[3.30] <총 27건>

(톱1) 헌정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대상은 '전 가구 70%'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5686247_32520.html

(톱2) 우리 가족도 받을 수 있나...정확한 기준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88800_32524.html

(톱3) 與 "숨가쁜 코로나 대응"…野 "100만 원으로 해결되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88801_32524.html

(톱1~3 기사 ☞ 국민적 논란에다 방법론도 불분명하고 국회 심의 결과도 알 수 없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계획을 톱기사로 3건 연속 보도, 총선을 앞둔 여권의 대국민 홍보 방송에 앞장 섬으로써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책무인 정치중립·객관성을 현저히 위배함.)

(4)~(13) 코로나19 기사 등

(14) [선택2020] [MBC여론조사] 서울 동작을…이수진 48.5% vs 나경원 36.6%

(15) [선택2020] [MBC여론조사] 안양 동안을…이재정 46.8% vs 심재철 33.6%

(16) [선택2020] [MBC여론조사] 대구 수성갑…주호영 44% vs 김부겸 40.1%

(14~15 기사 ☞ 수도권 경우 표본이 불과 500명에 부동층 비율은 25%나 되고, 범여 지지자 비율(54%)이 과다하게 표집된 조사 결과임. 2017년 대선 범여 정당 후보(문재인/심상정) 득표율은 투표율 77.2% 적용시 전국민의 36.5%(투표자의 47.3%), 범야 후보(홍준표/안철수/유승민)은 40.3%(투표자의 52.2%)였음.)

(27) [정참시] 황교안의 폐복글, 8번 고쳤지만… / 권양숙 여사를 못 만난 이유는?

[3.31] <총 25건>

(톱1~5) 코로나19 기사

(6) [단독]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91947_32524.html

(7) [단독] "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6~7 기사 ☞ 정치적 의도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한쪽의 일방적 전달 내용만을 단독보도라며 과다하게 보도)

(8)~(23) 코로나19, 사건사고, 정가 뉴스

(24) [선택2020] 후보 단일화…여당 '지지부진' 야당 '일부 타결'

[25] [정참시] "문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 무상급식" 논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4.1] <총 25건>

(톱1)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톱2) [단독] '유시민' 이름만 52번 거론…"없는 의혹 계속 추궁"

(톱3) [단독] "유시민 치고 싶다" 집요했던 요구…柳 "괴물의 모습"

(톱4) [단독] 이철 측이 부적절한 요구?...먼저 접근한 건 채널A

(톱5) 검언유착? 취재 윤리 위반?...추미에 법무 "간과 못해"

(톱1~5 기사 ☞ 신뢰성도 확인되지 않은 인물을 제보자라며 내세워 검언유착이라며 사건 연루 의혹의 여권 실세를 비호하는 내용 일색으로 톱기사에서부터 5건 연속으로 연이틀째 과잉과도 보도. 정치적 의도 개입의 가능성이 있는 한쪽의 일방적 전달 내

용이어서 정치공작 차원의 소지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외면. 여권 실제 개입 의혹의 신라젠 사건 본질 자체도 그동안 보도하지 않다가 결가지 사안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보수 언론의 유착이라는 자의적 해석과 구도를 설정 대입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공영방송으로서는 부적절한 보도 행태임.)

(8) 호기심에 참여한 n번방?...황교안 발언 '논란'

(☞ 여권 주요 인물의 문제 내지는 논란 사안은 다루지 않거나 야권의 경미한 사안과 묶어 몰타기 보도하면서 야권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꼭 끄집어 내 단독 비판 기사로 처리)

(9) [선택2020] 與 '공약 번복' 野 '막말 사과'...악재 수습 '진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94597_32524.html

(☞ 여당은 대국민 주요 공약을 번복하는 차원의 사안인데 야당의 주변적 언행 차원을 한데 묶어 몰타기 보도)

(10) [선택2020] 투표하러 마스크 쓰고 3시간...코로나도 못 막은 열기

(11~23) 코로나19, 사건사고, 부동산 등 기사

(24) [정참시] 김종인 방명록 '민...아차! 미래통합당' / 안철수 진료복 벗고 이번엔 운동복!

[4.2] <총 25건>

(톱1) [선택2020] 민주 "코로나 국난 극복...일하는 정당 밀어달라"

(톱2) [선택2020] 통합당 "3년 내내 무능했던 정권 심판해야"

(톱3) [선택2020] "거대양당 심판·양극화 막겠다"...제3지대 선거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97200_32524.html

(☞ 범여권 정당 3곳에 중도인 국민의당을 끼워 소개하는 사실상의 범여권 선거운동 보도인데 '제3지대'라고 표현하고 범야권 정당은 아예 소개 안함.)

(톱4) [선택2020] 지역구 판세...與野 모두 "우린 130석 거뜰"

(톱5) [단독]尹 총장 최측근 검사장과 통화?... "분명히 그 목소리"

(톱6) '검사장 목소리' 진실은?...'검-연 유착' 취재 전말

(톱5~6 기사 ☞ 연사흘째 검연유착이라며 일방 보도)

(7~11) 사건사고, 코로나19 기사

(12) [선택2020] 선거캠프 대신 '방역봉사단'...확 바뀐 선거운동

(13) [선택2020] "걱정 말아요" vs "갈아엎어야"...선거송 '불꽃 대결'

(14) [선택2020] 선거법 걸릴까봐...위성정당 알리기 '꼼수' 경쟁

(15,16) 코로나19 기사

(17) [정참시] 정책·공약 비교 1탄..."방역 모범사례" VS "실패하고 자화자찬"

(18~23) 코로나19, 사건사고, 부동산 기사

(24) [선택2020] [MBC여론조사] "이제 마음 정했다"...빠르게 줄어드는 '무당층'

[4.3] <총 17건>

(톱1) [선택2020] 與 강원·제주 공략…"대결정치 청산하자"

(톱2) [선택2020] 통합당 "경제 깡통 찰 지경…'경제코로나' 우려"

(톱3) 유시민 "금세 밝혀질 일…채널A 기자 왜 고소 않나"

(톱4) 해당 검사장이 아니라면 끝?…檢 진실 규명 '멈칫'

(톱3-4 기사 ☞ 연 4일째 정치적 의도 소지의 미확인 내용 집중 보도. 유시민 주장 일방 보도. 검-연 유착 의혹 일방 보도. 법무부 감찰 유도)

(5~11) 코로나19 기사

(12) [선택2020] 與 '꼼수 홍보' 제동…황교안 '키 작은 사람'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0199_32524.html

(☞ 여당의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와 MBC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야당 논란 발언을 한데 묶어 여당 문제는 몰타기하면서 야당 발언은 논란화 증폭시키는 편파적 보도. 선관위가 즉각 중지·시정을 요구하고 의법 처리를 경고한 여당의 행위를 '꼼수'라는 표현으로 희석시키고 오히려 민주당의 반박을 자세히 덧붙이는 '여권 위성방송'의 면모를 드러냄.)

(13) [선택2020] 혼자론 부족해!…온 가족이 "한 표 부탁드립니다"

(14) 코로나19 기사

(15) '건강보험료'가 기준…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나

(16) 방위비 협상 '김칫국' 마시지 마?…해명이 더 '군색'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0204_32524.html

(☞ 본질은 여권이 끝나지도 않은 대미 방위비 협상을 '완승'한 것처럼 왜곡 발언을 해 총선에 이용하려던 것이었고 더우기 미국으로부터 '김칫국'이란 조롱을 받아 한미 동맹의 신뢰성까지 떨어트린 사안인데, 이를 미국측 협상 관계자가 돌출발언했다는 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가하면서 몸통을 호도한 기사임.)

[4.4] <총 16건>

(1)~(10) 코로나19 기사

(11) [선택2020] 與 수도권 바람몰이…李 "국난 맞서 황 대표와 협력"

(12) [선택2020] 통합 "부산서 정권 심판 바람…18개 전 지역구 승리"

(13) [선택2020] '매운맛 민주당'까지…진보 비례 열전 '점입가경'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0199_32524.html

(☞ 여권의 제2 위성정당으로 범법혐의자와 윤리도덕적 문제를 안은 후보자들을 내세운 '열린민주당'을 사실상 열렬히 홍보하고 칭송하기까지 하고 나머지 여권 비례정당까지도 실질적으로는 함께 홍보해 주는, 공영방송으로서는 금도를 넘은 부적절한 보도로 MBC가 '여권 위성방송'으로 전략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보도.)

[보도 전문]

앵커

진보진영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사이에 비례의석 쟁탈전이 뜨겁습니다

최근 열린민주당이 '매운맛 민주당' 전략을 앞세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열린민주당에 날을 세우고 있고, 정의당은 위성정당들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껄럽의 최근 3주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포트

한국 껄럽의 최근 3주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진보진영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월 셋째주 33%에서 4월 첫주 21%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정의당은 7%에서 11%로 올랐고, 열린민주당은 4%에서 10%로 배이상 뛰었습니다.

시민당에서 빠진 지지율을 열린당과 정의당이 나눠가진 겁니다.

열린민주당은 이른바 '매운맛 민주당'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합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비례후보]

"저희의 특징이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유권자 일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요구를 대변해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민당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시민당을 만든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당 비례 11번부터 이름을 올린 민주당 후보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열린당을 향해 "민주당을 참칭하지 마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탈당한 적이 없다"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홍걸/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신 후에 탈당해서 거기로 가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지 않나.."

위성정당 출현으로 위기에 몰렸던 정의당은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들에게 실망한 진보층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1회용으로 만들어진 '뺏다방 정당'과는 다릅니다."

진보진영 비례의석은 전체의 50% 남짓으로 비슷하겠지만, 세 당이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삼각대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이상>

IV. JTBC 총선보도 '통합당·황교안 때리기'

1. 이낙연 홍보했던 뉴스룸, 노골적인 ‘황교안 공격’

▶ "교회 감염 거의 없다" 글 게시→삭제→복구…황교안 왜? (3.30.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2741&pDate=20200330

○ [앵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교회 내 코로나19 감염은 거의 없다"고 한 걸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이 내용을 인터넷에 썼다가, 지운 뒤에 다시 올렸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전체 글 중 이 부분을 1시간 반 만에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시간 뒤 또 다시 해당 부분을 되살려놓았습니다.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방인성/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목사 : 보수적 교회의 표를 구걸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는 정말 합당하지 않고…]

○ 지난 주말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정부의 우한 코로나 방역 대처를 비판하면서 교회 내 우한 코로나 감염이 거의 없다는 페이스북 글에 비판 여론을 반영한 보도. 그러나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일부에서 교회 문제 이외의 사회를 보는 시각이 좌편향 돼 있고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교회에 대해선 가혹하며 북한정권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친북 성향의 단체로 비판하는 단체다. 한국 교회에 비판적이고 북한정권에 관대하고 상대적으로 친여성향인 단체의 인사를 인터뷰어로 선정해 “보수적 교회의 표를 구걸하려는 것” 등의 일방적인 비난을 전하는 것은 편파보도. 기독교계 중 기독교 다수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극히 소수인 교회개혁실천연대 측 인사를 등장시켜 비난하도록 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전체 기독교계의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황 대표 발언에 찬성하는 다른 쪽 기독교계인사도 출연시켜 같은 비중으로 보도했어야 한다. 뉴스룸은 황교안 대표 본인의 해명을 전하는 것으로 반론기회를 부여했지만 자기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다.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객관성)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제8조(객관성)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제15조(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보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지지 또는 반대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황교안 "n번방 호기심 입장, 판단 다를 수 있다"…비판 쏟아져 (4.1.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3101&pDate=20200401

○ [기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황교안 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

n번방에서의 활동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전원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다수 여론이 비난하더라도 특정한 사회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권의 한 책임이기도 하다. n번방 사건은 비난받아야 할 사건이지만 법적으로 이 방에 참여한 전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법적 영역임. 검사 출신 야당 대표는 N번방 사건에서 바로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을 말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할만한 사안은 아니다. 언론이라면 무조건 비난 여론몰이로 보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했어야 했다. 특히 특정 사회적 사건에 대해 언론이 답을 정해놓고 나쁜놈 때려잡기식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황교안 후보가 n번방 사건을 옹호한 것도 아니고, 사건 처벌에 대해 다른 생각을 말했다고 여론의 집중공격을 받도록 단면적인 보도에 그치는 것은 언론이 전체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다.

○ 2019년 12월 30일(월)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 흐름…최종조율 필요”>란 제목으로 이낙연 당시 총리를 단독 인터뷰하며 사전 홍보했던 뉴스룸은 이낙연 총리에 불리한 보도는 단 한 꼭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후보는 부모 묘소를 불법조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4월 1일 첫 보도 이후 다수 언론이 보도했지만 뉴스룸은 보도하지 않았다. 맞상대인 황교안 후보에 불리한 보도는 단독 이슈로만 2건을 부각시켜 보도하면서도 이낙연 후보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는 편파성을 보였다.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더불어민주당 편들기 보도

▶ 4년 전과 다른 호남…현역 의원들 밀리며 민주당 강세 (3.30.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2737&pDate=20200330

○ [앵커]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선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호남 기반의 정당들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28석 중 23석을 차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를 이어받은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을 확대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적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지난 총선을 치른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호남 기반 현역(민생당)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 그러나 호남 현역 소속 정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지만 민주당도 호남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호남 기반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을 슬쩍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앵커가 ‘호남 기반의 정당들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라고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멘트로서 민주당이 마치 호남기반의 정당이 아닌 것처럼 시청자를 오도했다.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멘트로 민주당에 유리한 보도.

▶ 통합당 유튜브서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논란 일자 삭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2936&pDate=20200331

○ 미래통합당 유튜브 진행자가 문 대통령이 실정으로 퇴임 후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논란이 되자 영상을 삭제했다는 뉴스. 평소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코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 뉴스룸은 야당의 실수나 논란이 된 발언 등의 이슈는 빼놓지 않고 보도한다. 전형적인 친문어용 보도.

▶ 선관위,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 허용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3156&pDate=20200401

○ 선관위가 광화문 촛불시민연대가 서울 종로 등에 내건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적폐청산'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허용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반면 '총선은 한일전'이란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선관위가 광화문 촛불시민연대의 현수막 사용을 허가했다는 뉴스. 선관위는 '총선은 한일전'이란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지만, 촛불시민연대의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적폐청산'도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은 마찬가지임. 친일청산, 적폐청산이란 구호는 여권이 쓰는 구호로 당연히 특정 야당을 연상시킨다. 뉴스룸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을 미통당의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두 구호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짚었어야 했다.

3. 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보도하지 않는 뉴스룸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실 계란 테러는 보도하지만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 벽돌 테러 사건은 보도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철회한 '전국민 월60만원 공약' 논란은 보도하지 않았다.

● 외교부가 '임수경 방북 사건'만 거의 통째로 빼고 외교문서 기밀을 해제한 것은 보도하지 않았다. 경쟁사인 TV조선이 외교부의 이런 행위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보도한 것과 차이가 난다.

● 모니터 기간 중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윤석열 부부, 공수처1호 수사대상될 수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국, 정경심, 유시민, 김두관이 회유' 폭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이 풀린 사실 등 여권에 불리한 핵심 이슈와 관련하여 뉴스룸은 최성해 전 총장 관련사안만 보도 했다.

V. <연합뉴스> 편파적인 총선 보도

1. 주요 편파보도 사안 요지

-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권력에 아부하는 편파 보도로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어.
- 총선 보도 꼭지 수에서 여당인 민주당 관련 기사가 야당인 통합당 관련 기사보다 30% 정도 더 많아.
- 코로나 극복 관련, 여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쏟아 내면서 어떻게 극복한다는 것인지, '문 열어 놓고 방역'의 원죄는 누가 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
-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많고 중산층을 겨냥한 선거용 발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 사실도 보도하지 않아
-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조국 살리기'도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발뺌을 그대로 전하며 해명해 주기만.

2. [총선 D-10] 보도 편파 사례 팩트체크 분석

- ▶[총선 D-10] 이낙연 "코로나19도 해결 못하면 정치해서 뭐하나"(종합)(4.5 19:40)
- ▶[총선 D-10] 황교안 "조국 종자 막아내야...내 상대는 문재인정권"(종합)(4.5 21:11)

○ 연합뉴스는 4·15 총선을 꼭 열흘 앞둔 4월 5일 무려 60꼭지가 넘는 방대한 기사를 [총선 D-10]이란 대제목으로 묶어서 내보냈다. 그러나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기사가 많고, 야당 기사는 상대적으로 숫자도 적고 분량도 적은 데다 내용은 까칠했다.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권력에 아부하는 편파 보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연합이 내보낸 기사 중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관련 내용은 <민주, '실언 논란' 황교안 때리기...> '조국 프레임'엔 선긋기>, <민주 페이스북에 시민당 홍보 영상...선관위 "법 위반 아냐">, <민주, 첫 휴일 수도권 격전지 공략...> "비장한 각오로 국난 극복">, <임종석, 이수진 지원 유세...> "동물국회 장본인 나경원 책임져야">, <민주·시민 공동 정책 공약...> "'을' 권익 보호 맨 앞자리 설 것">, <민주·시민 공동 공약...> "배민 수수료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는 <통합당, '감염병 방어' 국민보건부 설치 제안>, <김종인 "조국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거냐">, <황교안 "불공정 아이콘 조국 살리기...조국 종자들 막아내야">, <통합당, '조국' 고리로 범여 집중타...> "부패·위선 심판론 띄워">, <통합·미래한국, 범여권 주요 후보 겨냥 '네거티브' 공세> 등이다. 꼭지 수로 따지면 민주당 관련 기사가 통합당 관련 기사보다 30% 정도 더 많았다.

○ 서울 종로구는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이다. 이낙연 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통

합당 후보가 모두 전직 총리 출신인 데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어서 종로에서의 승패는 총선 전체의 평가에 중대한 척도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지역보다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연합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한 기사의 본제목을 <이낙연 "코로나19도 해결 못하면 정치해서 뭐하나">로 뽑고, <이낙연, 종부세 완화 관련 "당 지도부와 협의·조정…당정청, 앞으로 논의">와 <통합당 '조국 프레임'에 "근거 없는 이야기…누가 살린다는 건가">를 부제로 달았다. 기사는 그러나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한다는 것인지, '문 열어 놓고 방역'의 원죄는 누가 져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많고 중산층을 겨냥한 선거용 발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체 지나갔고,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조국 살리기'도 이 후보의 발뺌을 그대로 전하며 해명해 주는 선에서 그쳤다.

○ 반면 황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한 기사는 <황교안 "조국 종자 막아내야…내 상대는 문재인 정권">라는 본제목에 <어제 "미워한다" 폐복글 삭제…오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분노할 뿐">을 부제의 하나로 달았다. 이 후보의 기사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당론조차 확정되지 않은 공약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반면 황 후보에 대해서는 굳이 폐복글을 꼬집은 것이 눈에 띈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공약을 우호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전후 배경 설명도 없이 말 바꾸기나 하는 후보로 단정하고 꼬투리를 잡는 듯한 보도는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분량도 1750여 글자 대 1500여 글자로 이 후보의 기사가 훨씬 더 길다.

○ 연합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사마다 '민주당은 아군, 통합당은 적군'으로 편을 가르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번 총선이 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인 탓으로 유권자들이 가뜩이나 '소중한 한 표'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판국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는 국가기간통신사가 군사 독재 시절의 '해바라기 언론'을 방불케 하는 편파 보도로 일관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공정 보도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로 엄중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끝.

[참고 말씀]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